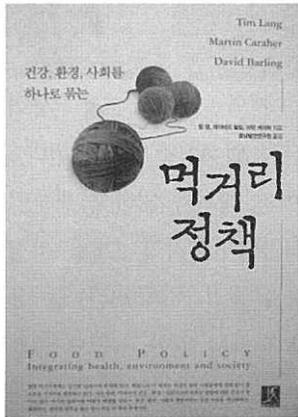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 '먹거리 정책' 번역서 출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은 통합적 먹거리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번역서 '건강, 환경, 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 정책'을 출간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이 책은 전세계적으로 먹거리정책(Food Policy) 분야의 독보적인 석학이자 1990년대 초반 '푸드마일'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한 영국 런던 시립대학교 '팀 랭(Tim Lang)' 교수를 중심으로 2009년도에 집필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먹거리정책은 현재의 분절적인 먹거리정책이 아닌 통합적인 먹거리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요즘 잘못된 먹거리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산업화된 농업생산에 따른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면서 "농업과 먹거리를 협소한 산업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지구환경과 인간의 선상을 선선하게 지탱하는 생명 유지의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생태적 선상'이란 개념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이해가 먹거리체계 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는 빅키리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글로벌 식량위기가 반성화된 지금,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칭)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 책이 농민의 소득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빅키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먹거리정책'을 논의하는 단초를 제공할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충발연 허남혁 책임연구원(번역 책임)은 "먹거리 종합계획은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최근 런던, 뉴욕, 토론토 등 세계적 대도시들이 지역의 빅키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이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덧붙였다. <도서출판 따비, 518p, 25,000원>

충남발전연구원, '행복' '사회적경제' 등 2013년도 연구아젠다 발표

- 12월 11일, 전략과제 제안대회 갖고 주요 연구과제 심의·토론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이 올해 전략과제 아젠다를 발표했다.

충발연은 지난 12월 11일 대전레전드호텔에서 올해 주요 핵심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2013년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제안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총발언이 뽑은 2013년도 연구 아젠다는 ▲충남도민의 행복노 제고 ▲선순환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 ▲충남 3대혁신(3농, 분권, 행정) 실천 전략 수립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충남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 ▲충남 현안 정책 대응 등 총 6개 분야다.

특히 총발언 박진도 원장은 "내년도 전략과제는 올해 수행했던 '행복' '선순환' '3농 혁신' 등 연구의 지속성이 필요한 과제의 실천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육성, 충남 자살실태와 예방 연구, FTA·기후변화 등 충남의 중장기적 대응 연구들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안대회에는 충남도 권희태 정무부지사,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원내·외에서 제안된 60개 과제 중 1차로 선정된 28개를 발표·심의했다.

한편, 총발언의 2013년도 전략과제는 이번 제안대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최종 심정해 1월부터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농어촌응원운동 "사랑촌(村) 행복파티" 개최

-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마을에서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운동' 전개



충남농어촌 응원군 확보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 파워블로거와 충남농촌체험마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은 충남농어촌응원운동본부,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랑촌(村) 행복파티"를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에서 11월 10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체험환농에 관심있는 도시 파워블로거 30가족(약 120명)과 충남농촌체험마을 관계자 등 총 180여명이 참가해 도농가족간의 교류·소통의 장이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아침밥상차리기 경연, 비빔밥 컨테스트, 고구마 개기 등 체험활동, 지역농수산물 가공품 직매장 운영, 우리마을 자랑시

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졌으며, 마지막 순서로 '도농가족 결연식'을 갖고 충남농어촌 응원군을 결성했다.

특히,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침밥상차리기 경연은 지역농수산물을 활용한 333아침밥상차리기 경연(3가지, 3색, 30분 조리)으로서 요즘 아침식사를 거르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메인 행사다.

또한, 경연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는 모두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며 경연을 통해 충남도만의 '균침도는 아침밥상', '맛깔난 건강밥상' 등을 신징, '최고의 밥상'을 뽑기도 했다.

충남발전연구원 농이업6차산업화센터 유학열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선정된 충청남도의 아침밥상은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며, 도시민과 충남체현마을의 결연을 통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도농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과 마을 만들기」 번역서 발간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이 역사적 유산을 이용한 일본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다룬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과 마을 만들기"를 번역, 발간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 책은 역사적인 건물과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모범적인 마을 만들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근대 역사적 유산의 활용이 활발히 이

뤄지는 미국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개별 역사적 유산, 근대산업 유산, 마차야, 가아부키 등을 중심으로 한 실제 활용·재생 사례와 여기에 참여한 현상 사람들의 경험담도 담겨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우리는 마을의 역사적 유산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다가 막상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책을 통해 국내에서도 역사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카와 나오미·야스미치 역음, 충남발전연구원 옮김, 368쪽, 3만4000원, 한울〉

충남발전연구원, '전통 시장 어린이 경제캠프' 실시

- 지역이동센터 학생 대상으로 현명한 소비활동 등 체험학습프로그램 제공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경제교육센터는 11월 3일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에서 지역아동센터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배우는 경제이하기”라는 주제로 어린이 경제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경제캠프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전통시장에서 배우는 경제교육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캠프가 열리는 온양온천시장은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전통시장 운영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다.

충남경제교육센터 임형빈 센터장은 “이번 어린이 경제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통시장에서의 현명한 소비생활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경제캠프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전략 연구과제 보고대회' 24일 개최

-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연구성과 발표토론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은 10월 24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2012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올해 충발연이 중점 수행하고 있는 전략연구과제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충남도정이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전략'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충발연은 총28개 전략연구과제 중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고승희),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실태 및 과제'(신동호), '충남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강마아),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활성화 방안'(송두범),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과 적용방안 연구'(박천희) 등 총5개 연구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한편, 연구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한남대 민완기 교수의 좌장으로 충남도의회 유명돈 행정자치위원장, 충남대 안기돈 교수, 중앙대 배용규 교수, 통계개발원 이희길 사무관, 충북대 김학실 연구교수, 충남도 박법인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각 연구과제의 향후 발전방향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충남도의회 유명돈 행정자치위원장은 “충발연의 전략과제 연구성과가 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남도, 도의회 등과 지속적 논의를 거쳐 향후 도정을 이끄는 주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선도적 연구개발과 정책제안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이 전략연구과제가 충남도정에 밀착되어 될 수 있도록 학계,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언론계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